

---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한  
농촌관광 진흥방안

---

---

장인식\_우송정보대학

---

#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한 농촌관광 진흥방안

A Reinvigoration Plan for Rural Tourism by the Urban-Rural Exchange Programme

장인식\* Jang, In-sik

## 목 차

1. 서 론
  2. 개념 및 의의
  3. 사회적기업 현황 및 사례
  4. 연구의 한계 및 과제
- Promotion Strategy of Social Enterprises in Daejeon City

## I. 서 론

지방화와 세계화의 흐름은 서로 상반되는 고유성과 표준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 래서인지 향후의 미래사회는 융(融, fusion), 동(動, dynamic), 연(連, network), 감(感, feeling), 유(遊, entertainment)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 이 같은 판단은 차별화 된 독창성을 강조하는 경쟁(competition)과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공생(symbiosis)의 지혜를 동시에 가져야 한다는 이중성을 의미하기도 한다(장인식, 2004). 그 중에서 향후 정보통신 및 환경부문과 함께 미래의 3대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관광부문 역시도 결코 예외는 아닐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관광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꾀하려는 사례와 의지는 쉽게 찾아볼

\* 우송정보대학 문화관광계열 교수로서 관광개발정책에 관심이 많다.

수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이미 각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 관광관련 진흥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관광기본법 제3조와 제6조)가 의무적으로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게다가 2008년 8월부터 ‘녹색성장’이라는 용어가 국정운영의 핵심기조가 되면서부터 녹색관광, 생태관광은 물론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농업(농장)관광과 농촌관광이 크게 주목받고 있는 실정이다(고동완, 2010).

이 같은 흐름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일반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지역 문제가 과밀(congestion)과 비효율(disutility), 과소(scanty)이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현대인들의 가치관 역시도 환경과 문화, 삶의 질을 중시하려는 움직임까지 가세하면서 자연스럽게 균형화 노력을 요구하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로 이어 지고 있다. 아니 더 나아가 지역사회(community)로 확대되고 있는 형국이다. 단지 방식의 차이로써 외부도움(간섭)의 유무만이 서로가 다를 따름이다.

여기에서 도시는 과밀문제를 안고 있으며 농촌은 과소문제로 고민하고 있기에 이들을 통합하여 다루게 되는 도농개발(ruban development)과 도농통합(urban-rural continua)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일지도 모른다. 즉, 지역 내(內)든지 지역 간(間)이든지 불균형 해소차원에서 도농교류가 필요한 것이다. 결국 이에 합당한 지역정책 역시도 이러한 형평성 노력을 바탕으로 어떻게 효율적이며 환경 친화적으로 엮어가는냐로 요약된다(김수신·고명호, 2003).

한편 도농 간의 격차원인과 농촌지역의 저개발 원인을 찾아내어 예상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전략방안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기존 틀/framework)과는 달리 농촌 스스로 안고 있는 지역 간 특성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활성화 방안이 바람직하리라는 주장도 눈에 뜨인다(김창현·이순자·이성수, 2006). 이는 농촌에 대한 가치를 공익적으로 재인식하여 인구와 산업구조에 적합하게 달리 바라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김창현 외, 2006).

아무튼 도시와 농촌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다양함(variety)과 농

촌의 쾌적성(amenity)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은 바탕삼아 인적 교류는 물론 상품과 서비스, 문화정보 등 물적 교류까지 서로를 보완하려는 움직임을 지니게 된다. 즉, 도시팽창에 의한 근교지역의 영향력 확산은 점차 농촌과의 거리를 좁히는 열쇠가 되고 있는 셈이다. 인구이동과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 변화가 가장 먼저 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에서도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 8751호)을 2007년 제정하기에 이른다. 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농교류촉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맞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이를 통해 소득원 사업에 대한 시행을 도와주고 있다. 특히, 농어촌 체험 지도사나 농어촌마을 해설가 등 도농교류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방안도 언급하고 있다(농림수산식품부, 2008).

대전광역시 역시도 활력 있고 경쟁력 있는 경제과학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아래 대도시 근교농업을 육성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대전광역시, 2005). 민선 5기에 들어서는 농촌체험마을 활성화와 도시농업의 육성을 통해 도시와 농촌교류를 확대, 인간과 자연,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있다(대전광역시, 2011). 여기에는 녹색농촌 체험마을 4개소와 농촌전통 테마마을 1개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와 같은 대도시권내에 위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도농교류에 대한 이해를 바탕삼아 관광을 수단화함에 있어 요구되는 기존의 접근방법들을 정리해보고 보다 현실에 합당한 새로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II. 도농교류와 농촌관광

### 1. 도농교류의 이해

19세기가 자유의 시대였고, 20세기가 평등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행복의 시대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는 과거생활의 핵심이 생존과 성장을 위한 치열한 경쟁 구조이었다면 이제는 자존과 자유를 위한 개선과 진보 등으로 그 중심점을 이동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그래서인지 미래의 도시정책들도 활력(vitality)과 녹색(green), 재생(regeneration), 문화(culture), 복지(welfare), 참여(participation)라는 새로운 이념들로 재구성되어 가고 있다(장인식, 2011).

일반적으로 도시들은 과밀현상에 의한 환경오염을 비롯하여 교통 혼잡, 주택부족, 실업문제, 범죄증가, 인간 소외 현상 등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개발제한이라든지 공동체 의식 확립, 인구 분산 정책 등이 시행되고 있다. 반면 농촌지역에서는 인구감소를 비롯한 고령화, 성비 불균형, 농가 소득 감소, 노동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가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인간에게 주어진 하루의 전체 시간 중에서 생활필수시간과 노동(구속)시간을 제외한 잉여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제반 물질문명의 발달이 일(노동)과 시간을 단축시켜 놓고 있기에 더욱 더 그러하다. 늘어만 가는 자유 시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가를 개인의 영역에만 묶어 놓고 방치하기엔 너무 부자연스러워졌다.

무의미한 시간 때우기와 소극적이며 획일화된 개인여가활동은 사회적으로 많은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다. 바로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여가문제가 등장한 것이다. 인간의 신선미와 주체성을 부여하고 건전한 문화유지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순간적인 즐거움이나 특정 목적으로서의 변질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인지 오늘날의 여가가 시대요청적인 문제해결식 사회현상으로 비쳐지고 있다는 생각이다.

결국 도시문제와 농촌문제, 그리고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다양한 여가문제 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수단이 바로 도농교류가 될 수 있기에 그 중요성이 더해간다는 판단이다. 물론 농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문화여건을 잘 활용, 도시의 팽창하는 여가수요와 적절히 연결시켜준다는 관점도 있을 수 있겠으나 각기 지역별 특성이 존재하고 있고 자칫 획일화 경향으로 흐를 수 있기에 문제해결식 접근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이다.

아무튼 이러한 도농교류에 대해 이상배(1995)는 ‘상호방문이나 산물의 판매를 위한 거래만이 아닌 교육과 문화적인 상호보완관계 노력’이라 설명하고 있으며 김병률(2003)은 ‘도시와 농촌간의 상호 매력요소를 교환함으로써 서로간의 결핍요소를 동등한 차원에서 주고받는 관계’라 밝히고 있다. 송미령(2003)은 ‘도시와 농촌간의 여러 측면에서 형성되는 상호관계를 통해 만족을 얻고자 하는 방식’이라 언급하고 있다.

이어 농어촌연구원(2004)에서는 ‘인간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나 자매결연 등을 통해 사람 간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상품과 정보, 자본, 서비스 등이 양방향으로 반복적이며 지속적으로 교환되고 거래되는 과정’이라 정의하고 있다. 한국농촌공사(2008)는 그린 투어리즘이나 농촌관광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지역의 생태·문화·역사자원에 대한 이해증진과 농촌 활성화와 같은 공공 목적을 위한 인적교류에서부터 상품과 서비스, 정보와 문화, 자본 등의 물적 교류까지 포함하는 양방향간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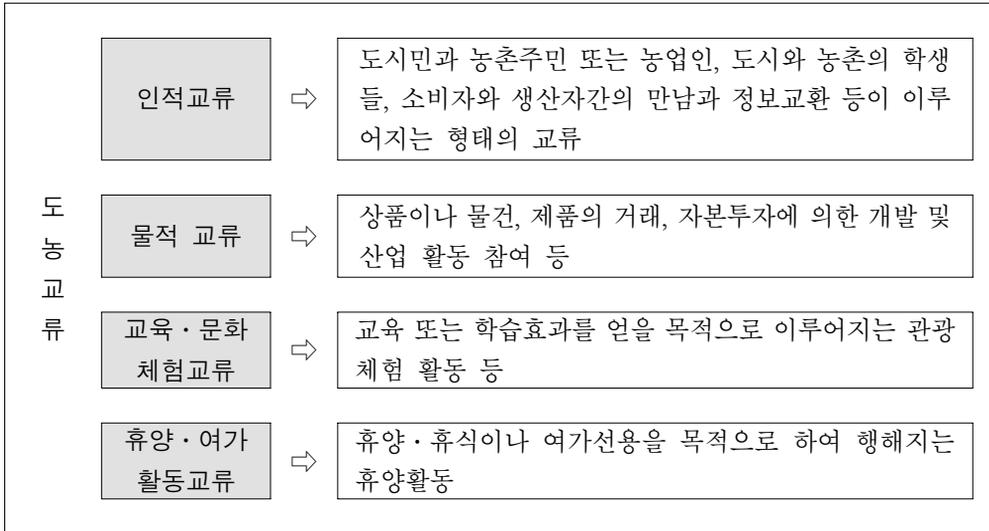
이러한 도농교류의 유형에는 자매 결연형(인적교류), 상품 거래형(물적교류), 농촌문화 교육형(체험교류), 농촌 관광형(여가교류) 등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실제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도농교류 협력사업』으로서 ① 농어촌 체험사업 ② 농어촌 지키기 사업 ③ 농어촌 알리기 사업 ④ 농어촌 폐교 공간 활용사업 등으로 구체화되어 있기도 하다(한국농어촌공사, 2011).

정리해보면 개방된 세계 시장 환경에서 가격보다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자의 선택기준과 토지이용 측면에서 자본과 기술지식, 자원의 지속가능성 중시하려는 생산방식의 변화가 크게는 글로벌화 환경 친화적인 움직임, 작게는 건강과 여가를 중시하려는 라이프스타일과 만나 도시와 농촌의 공생여건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농림수산식품부, 2009).

활발한 상호교류를 통해 지혜를 발견하고 서로 상이한 문화도 체험하면서 「살아서 좋고 방문해서 좋은 지역 만들기」라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풀이이다(박구원, 2008). 그것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전제에 지역주민에 의한 실현 가능성에 그 무게를 두고 발전되어 가고 있다. 곧바로 이러한 형태는 대량관광(mass tourism)에 대응하는 새로운 관광(new tourism)을 만들어 내었다(北川宗忠, 2001).

物(관광자원)을 찾아 人(관광객)이 이동하는 형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주체가 되고 주위의 모든 것들이 이를 지원해가는 창조형 관광형태가 바로 새로운 관광형태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교류’와 ‘지역’이라는 핵심용어가 존재하게 된다. 즉, 일방적인 관광객 만족의 관광행태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관광행태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안중윤, 1990).

더 나아가 이러한 변화는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관광자원과 인적요소의 개발을 통해 지역성을 높이고 지역 활성화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동시에 관광객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개발전략으로서 지역사회 관광개발(community-based tourism development)까지 확산되어 가고 있기도 하다(김성진 외, 2006).



[그림 1] 도농교류의 유형

## 2. 농촌관광에 대한 논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려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관광을 향유할 수 있는 제반적인 여건개선(시간, 금전, 대상, 정보 등)과 함께 아주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으로 폭 넓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 단지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양적으로 늘어 난 대량관광(mass tourism)의 긍정적인 효과만큼이나 부정적인 영향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러한 관광폐해를 적게 하면서도 지역주민과 방문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관광(alternative tourism)이 등장하게 된다(박용순·고동우, 2010). 여기에는 녹색관광(green tourism), 농촌관광(rural tourism), 생태관광(eco tourism) 등 가능한 방문지역을 존중하는 차원의 연성관광(soft tourism)으로써 장래까지 자원가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속가능한 관광(sustainable tourism)과도 뜻을 같이 하고 있다(한국국제관광개발연구원, 2000).

특히 대안관광 중에서도 지역공동체 중심관광(CBT)과 책임관광(responsible tourism)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 역시도 저 영향관광(LIT; Low Impact Tourism)의 한 형태로서 문화적 가치관과 자연환경을 존중하면서 이루어지게 된다. 즉, 관광활동과 개발에 관한 의사결정이 철저하게 그 지역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광지식정보시스템, 2011).

아무튼 이러한 논의의 대상으로 농촌이 부각되었다. 그것도 도시와 대비되는 농촌인식이 아니라 도시와의 기능적 연관성과 결합성의 맥락에서 단지 농산물 생산 지역이라는 협소한 부문(sector)이 아닌 농촌의 다양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지역(territory)의 관점에서 다뤄지고 있다. 여기에는 어메니티(amenity)라는 용어도 숨어있다.

농촌공간에 존재하는 친근한 소재와 특성들을 일컫는 말이다(박덕병, 2005). 즉, 농촌만이 지니고 있는 장소적인 특성가운데 쾌적함, 즐거움, 매력, 긍정적인 감정, 여유로움, 풍요로움 등 인간의 심리적 느낌을 안겨줄 수 있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이들을 수요자 입장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터이자 일터인 농촌전반에 정착시키고자하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광의 장소’로서 농촌을 선택하게 되면 농장(농업)관광(farm tourism)으로 연결되어 지며 ‘관광자원의 이용’ 측면에서 농촌을 상대하면 녹색관광(green tourism)이나 생태관광(eco tourism) 차원에서 농촌관광이 일컬어지고 있다고 보여 진다(Sharply & Sharply, 2002; 류선무, 2009; 조광익 외, 2010). 게다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철학과 이념적인 측면에서 자연환경이나 지역공동체의 대상으로 농촌을 선택하게 되면 지속가능한 관광으로까지 그 범위가 넓어진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여전히 농촌관광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녹색관광(그린투어리즘)을 농촌관광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은 일본의 영향을 받

았다는 해석이다(조광익 외, 2010). 이 같은 현상은 ‘농업과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농업이나 농촌이라는 용어보다 그린(green)이라는 개념이 포괄적이기에 업무협조에 용이하다’라는 이유도 있다(송광인, 2004).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대체로 녹색관광과 농촌관광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영국에서는 녹색관광(green tourism)이라 칭하고 프랑스에서는 농업관광(agri-tourism)과 혼용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농촌관광(rural tourism)이라 다루고 있다. 결국 농촌관광이란 시대와 목적,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폭넓은 해석으로 개념변화를 피하고 있음은 확실해 보인다.

<표 1> 농촌관광과 연관된 개념들

| 관 광 유 형 | 개 념 정 리  |
|---------|--|
| 농 장 관 광 | 캠핑, 교육활동, 휴양활동, 농장물품의 활용 등 농장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관광                         |
| 농 업 관 광 | 농장관광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농업적인 환경이 직접적으로 관광 대상이 되기에 자연환경뿐만이 아닌 문화적 요소도 포함된 형태 |
| 생 태 관 광 | 자연관광보다 환경보전에 더 적극적이기에 지속가능성과 교육성이 강조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직접적 편익을 제공하려는 형태  |
| 녹 색 관 광 | 비도시지역에서 일어나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으로서 방문지역을 존중하고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형태                   |
| 기 타 유 형 | 대안관광, 책임관광, 지속가능한 관광, 자연기반관광, 지역공동체중심 관광(지역사회관광)                     |

정리해보자면 녹색관광과 유사한 농촌관광은 대중적 관광에 대한 대안적 형태의 관광을 의미하며 농촌 환경과 자연생태계, 농촌생활, 농촌의 전통문화 등을 관광의 소재로 삼아 소규모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을 추구하고 있음을 의

미한다. 게다가 한정적인 농촌관광은 농촌의 자연과 문화, 평화로움과 안온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농촌관광을 말한다. 즉 농가에서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특산물·음식 등 상품을 개발하며, 여기에 이벤트와 농사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추가함으로써 농촌지역의 농업 외 소득을 증대시키려는 형태라 할 수 있겠다.

### 3. 농촌과 관광개발

관광부문의 위상이 독립적이든 종속적이든 간에 영향력 높은 5대 분야가 사회학과 경제학, 심리학, 지리학, 인류학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관광개발은 지리학의 영향권에 있을 것이다. 따라서 관광 지리학(tourism geography)은 관광·레크리에이션 현상의 지역적인 분석을 통하여 이를 체계화하는 인문지리학의 한 영역이 된다. 관광지역에 대한 형성과 기능, 구조 등을 밝혀내어 관광지역론을 구축하는 동시에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동태, 행동 등에서 관광시장의 동향을 밝혀내는 영역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관광지의 분포와 입지, 관광자원, 관광산업, 관광객의 지역적 특성, 관광권, 관광루트 등의 관광공간 구조변화와 현상파악, 기타 환경보전 등이 핵심주제가 된다 하겠다(한국국제개발연구원 역, 2000).

그렇다면 관광개발은 어떠한가? 이는 관광과 개발의 관계설정에 따라 개념 지을 수 있다 하겠다. 즉, 관광을 의도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의미에서 개발의 수단으로 삼는 접근과 단순히 관광과정에서 필요한 제반 요소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겠다. 다시 말해 관광 진흥 및 육성과 같은 폭넓은 해석이나 아니면 관광자 또는 관광지역의 희망조건만을 충족시켜주는 좁은 해석이나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성장·발전과 그 뜻을 달리 하는 개발에 대한 해석이 경제적 중심의 생존형(self-sustenance)인가, 분배와 자립 중심의 자존형(self-esteem)인가, 삶의 질 향상을 꾀하는 자유형(freedom from servitude)인가에 따라서도 관광개발의 목표와 방

향과 직결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관광개발 역시도 그 적용범위와 다루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성격자체가 좌우된다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관광개발이란 관광자원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찾아내거나 높임으로써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경험을 보장함으로써 그 효과로 힘입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일을 일컫는다거나 관광개발주체가 자원성, 시장성, 수용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상지에 인력과 자본, 기술 등 유·무형의 투자를 하여 발전을 꾀하는 행위를 가리킨다(안중윤 편, 1985). 이는 적용범위의 넓고 좁음을 의미하기도 하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관광지 개발과도 구분되는 부분이다.

동시에 관광개발은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후생(厚生)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개발(regional development)과는 목표와 목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공통요소는 지니고 있다 하겠다. 아무튼 관광개발의 개념이란 관광대상을 의도적인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한 상태로 변화시킨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그래서 관광개발의 성격 역시도 여러 기초학문을 토대로 삼아 관광자와 관광지역 주민의 희망조건을 어떠한 원리와 지식으로써 어떻게 접근하며 예상되는 효과를 추구하고 또 하나의 지식체계로 쌓아 가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될 수 있다 하겠다.

다시 말해 관광개발의 영역 역시도 관광구조상 주체와 객체, 매체까지도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본질이 관광대상에 있기에 행위주체자인 주체(관광객)를 중심으로 한 관광여건의 형성에서는 시작하되 나름대로의 남다른 원리발견에 힘써야 할 것이다. 예컨대 계획이념, 목적과 과제, 목표설정, 기본방침과 개발구조, 개발내용과 개발방법, 사업타당성 등과 같은 일련의 과정이나 관광개발에서 예상하고 있는 효과 예측 및 개발 후의 평가 등은 과거 인식론이나 가치론, 자원분포나 공간구조, 수용력 등과 같은 기존영역과는 남다른 부문이라 하겠다.

결국 농촌에 대한 관광개발 역시도 공급측면에서 보여 왔던 공간 구조적 접근과 자원 중심적 접근, 수요측면에서의 마케팅 지향과 관광행태 및 선호요인 도출, 기

타 관광지역 측면에서의 수용력 중심과 지역사회 변화탐색 등으로 압축될 수 있다 하겠다.

<표 2 > 관광개발의 목표와 형태

| 구 분 | 개발형태      | 적용대상        | 구 분 | 개발형태   | 적용대상   |
|-----|-----------|-------------|-----|--------|--------|
| 균형  | 개별 관광개발   | 관광지, 관광사업   | 거점  | 관광단지개발 | 관광단지   |
|     | 지역사회 관광개발 | 관광 농·산·어촌   |     | 위락단지개발 | 리조트단지  |
|     | 지역 관광개발   | 시·군 단위 관광지역 |     | 관광지구개발 | 특정주제개발 |
|     | 광역 관광개발   | 관광권역·도 단위   |     | 관광특구개발 | 관광전문지역 |

### III. 도농교류와 관광개발의 접근구조

#### 1. 이분법적 구조

먼저 이분법(dichotomy)적인 입장으로서 Pigram(1983)은 관광지 개발에 따른 입지요소를 물리적 조건과 지표조건, 접근성을 포함한 인공시설조건, 기타 개발제약성이라 보고 이에 대한 최소화(minimum)전략과 최적화(optimum)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김홍운(1989)은 관광 지리학의 전통적인 관심은 입지(立地)에 있다고 보고 관광개발상에 있어서는 절대위치(absolute location)적 관점과 상대위치(relative location)적 관점에서 관광지의 성격분석과 관광지역 구조를 명확히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Bale(1988)는 지역관광개발을 국가적인 배려와 관심정도에 따른 정치경제적(political economic)인 접근체계와 변동하는 관광수요 및 고정적인 관광지특성이나 방문객 특성, 기타 연속선상에 놓여 있는 관광개발의 영향 등과 연관된 기능적

(functional)인 접근체계로서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교통개발연구원(1988)에서는 낙후지역 중에서 관광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관광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한 후,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활성화시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실행전략으로서 산업입지상의 기준과 관광입지상의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다.

Pearce(1989)는 관광개발과정상의 역할구분에 따라 통합개발(integrated development) 전략과 촉매개발(catalytic development) 전략으로 구분 지어 설명하고 있는데 전자는 다른 개발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단독집중개발이며 후자는 다른 개발자와의 보완관계로서 개발을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양산업 지역(declining industrial region)과 같은 낙후지역에 있어서는 관광개발이 지리적으로 부유 도시지역과 빈곤주변지역간의 재분배수단이 될 수 있고 농업과 제조업과 같은 목적으로서의 성급한 지역개발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유용하기에 시장잠재력을 비롯한 자본, 노동, 축적기술 등과 같은 공급능력(a capacity to provide)에서 결정되는 관광능력(tour ability)에 맞는 개발전략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김사현(1990)은 관광의 특성상 관광자원과 관광재의 개발행위를 통해 얻어지는 공급적인 개발과 실제수요자의 소비행태 및 의식구조에 근거한 수요(소비)적인 개발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낙후지역의 관광개발은 사람위주의 번영(people prosperity) 전략과 장소위주의 번영전략(place prosperity) 등이 있다고 보아 전자는 사회경제여건을 개선하고 후자는 생활여건의 개선에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엄서호(1991)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관광개발의 공익적 기능을 올바로 인식해야 한다는 근원적 차원에서의 전략과 실제적이며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차원에서의 전략으로서 낙후지역을 포함한 지역관광개발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John과 Wheeler(1991)는 관광 개발사업에 있어서의 전략을 생산성에 두고 적극적으로 시장을 공략하는 확장전략(expansion strategy)과 방어적으로 시장에 대응하는 수축 전략(contractive strategy)으로 구분 지어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Lickorish(1991)는 관광개발전략상 정부의 역할을 관련행정이나 제도마련, 교육 훈련, 기타의 협상업무 등과 같이 소극적으로 행하는 형태와 경영관리자적인 입장에서 관광개발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적극적인 역할로서 구분하고 이는 관광개발의 목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지역주민과 관광자를 분리하는 요충지 방어 개발(enclave development)과 공공과 민간이 조화를 이루는 통합개발(integrated development) 등으로 나누어진다고 보고 있다.

한편 Kermath와 Thomas(1992)는 리조트개발에 있어 공간적인 경쟁과 지역관광 시장에 따라 점차 관광정책과 전략이 요구 시 되는 공식부문(formal sector)과 관광 전략이 필요 없는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등으로 관광리조트 발전과정과 연관된 색다른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김영빈(1994)은 개발용지의 활용상에서 목표의 인식과 지향하는 형태를 먼저 결정하고 개발적지를 탐색해 가는 민간형 개발전략과 개발가용지하에서 그 용도를 찾아나가는 공공주도형 개발전략이 나누어진다고 제시하고 있다.

<표 3 > 이분법적 접근구조

| 구 분              | 주 요 접 근 체 계            | 주 요 내 용                |
|------------------|------------------------|------------------------|
| Pigram           | 최소화전략/ 최적화전략           | 개발입지평가                 |
| Bale             | 정치경제적/ 기능적             | 국가적인 배려정도 및 개발과제       |
| 김 홍 운            | 절대위치/ 상대위치             | 개발입지와 관광지역구조           |
| 교통개발연구원          | 산업입지상/ 관광입지상           | 낙후지역의 관광개발촉진지구         |
| Pearce           | 통합개발/ 촉매개발             | 관광개발상의 역할구분            |
|                  | 시장잠재력/ 공급능력            | 시양산업지역의 관광능력           |
| 김 사 현            | 공급적/ 소비적<br>사람위주/ 장소위주 | 관광개발구조상<br>낙후지역의 관광개발상 |
| 엄 서 호            | 근원적차원/실행가능차원           | 균형적 지역관광개발상            |
| John & Wheeler   | 확장전략/ 수축전략             | 관광사업의 생산성측면            |
| Lickorish        | 소극적/ 적극적               | 정부의 역할정도               |
| Kermath & Thomas | 공식부문/ 비공식부문            | 공간적 경쟁과 지역관광시장면        |
| 김 영 빈            | 공공주도/ 민간주도             | 개발가용지 확보방법상            |
| 박 석 희            | 공존관계/ 경합관계             | 관광개발과 타산업과의 관계         |
| 이 연 택            | 필요조건/ 충분조건             | 지역관광개발상                |
| 손 대 현            | 최적화개발/ 저영향개발           | 지방관광개발측면               |

박석희(1995)는 관광개발과 타산업과의 관계 측면에 있어 관광개발은 공존관계와 경합관계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사적재(private goods)와 공공재(public goods)간의 적절한 자원분배가 사회복지의 증대라는 궁극적인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연택(1995)은 지방정부의 관광개발에 대한 관심은 경제 가치와 사회문화가치에 의해 고조되고는 있으나 모든 지역이 관광개발로 성공할 수 없

다고 강조하고 자원성과 시장성과 관련된 필요조건 및 효용성과 차별성, 서비스와 연관된 관광 상품화에 대한 전략적인 충분조건이 뒤따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끝으로 손대현(1995)은 지방관광개발을 위한 지침으로서 자연과 문화가 균형을 이루는 환경과의 조화를 강조하고 최적화개발(sub-optimization) 및 저영향 개발(low-impact), 또한 시설 개발 측면에 있어서는 자연건강인자(natural health factor) 측면과 인간건강인자(human health factor) 측면이 고려된 상태에서의 개발전략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 2. 삼분법적 구조

삼분법(trichotomy)적인 입장에서 정리할 수 있는 관광개발상의 전략들이란 관광계획을 일면적인 접근보다는 다면적인 접근방법으로서 더욱 유용화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거시적인 단계(macro-phase)와 과정적인 단계(transitional-phase), 미시적인 단계(micro-phase)로 구분, 각각의 구체적인 개발전략들을 설명하고 있는 입장부터 시작한다. 그 중에서도 이장춘(1991)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성장거점도시 등과 같은 결절 지역 및 농어촌, 광산촌, 관광지과 같은 동질지역에 맞도록 하는 복지관광정책의 개발대상을 선정 짓고 해당지역별로 개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김병문(1986)은 관광지개발은 자연보호와 전국토의 관광공간화 차원에서 관광객이 특정관광지에 집중되는 현상을 분산하기 위해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관광객의 동태를 중심으로 한 관광주체 및 관광잠재력과 특성화, 공간적 활용을 감안한 관광객체, 관광지의 활성화와 연결된 관광매체 등 관광구조상의 균형적인 접근체계로서 설명하고 있다. 게다가 이질현(1986)은 낙후 지역과 밀접한 관광농업개발에 대한 발전전략으로서 토지와 노동력, 자본, 생산기술수준, 생산요소의 결합 형태를 고려한 생산전략과 상품형태 및 종류와 관계되는 판매전략, 1차 산업과 3차 산업의 성격을 조합할 수 있는 교육훈련전략 등으로 그

의 구체적인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Peck과 Lepie(1977)는 급성장(rapid growth), 완만성장(slow growth), 일시적 발전(transient development)등과 같은 관광지의 성장 및 변화정도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를 고려하여 개발전략이 대응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기도 하며 Pearce(1987)는 관광의 구조를 루트나 수급체계상에 나타나는 출발지와 도착지간의 관계 및 시장과 관광 상품간의 구조체계로 보고 관광부문의 공간적인 편차(spatial variations)를 비교, 측정하여 관광개발에서 요구되는 출발-도착지 모형(origin-destination model)과 구조모형(structural model), 진화모형(evolutionary model)을 제시, 전략마련에 기초적인 발판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안중윤(1990)은 관광개발을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서 각종 자원을 이용하거나 복원 및 창조하여 유무형의 수용체제를 정비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관광 상의 편익기능을 촉진시키는 자원이용 및 역사문화유산 등의 발굴과 복원에 관계되는 자원복원, 관광대상으로서의 새로운 시설과 같은 자원창출 등을 체계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한편 김원인(1995)은 관광자원이 공공재라는 사고에서 국토의 자연조건을 종합적으로 이용, 개발, 보전하며 산업입지와 생활환경과의 적정화를 고려, 공공주도형과 민간주도형, 지역주도형 등과 같은 개발유형에 적합한 개발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을 주문하고 있기도 하며 장병권(1996)은 관광발전에 대한 의미를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상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상태, 각 관광요소간의 균형적인 상태 등의 순이라 밝히고 조성기와 성장기, 도약기로 구분된 한국의 관광발전 단계와 연관 지어 관광자원의 개발, 관광내용의 개발, 관광개발범위의 확대 등과 관련한 접근체계를 광범위하게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Sola(1992)는 관광정책에 대한 가능전략수립에 있어서는 경쟁조건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는 내부(internal)전략과 관광시장에 대한 우위를 분석하는 외부

(external)전략, 위험과 기회환경을 중심으로 한 동태(dynamic)전략 등으로 구분 지어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Davies와 Gilbert(1992)는 유럽공동체 국가의 농촌관광개발을 설명함에 있어 시장원리에 입각한 관광객 접근법, 지방정부에 의한 관광개발, 민간합동에 의한 관광개발 등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였다.

<표 4 > 삼분법적 접근구조

| 구 분             | 주 요 접 근 체 계       | 주 요 내 용          |
|-----------------|-------------------|------------------|
| Peck & Lepie    | 급성장/ 완만성장/ 일시개발   | 관광지의 변화정도를 고려    |
| 이 장 춘           | 거시적 / 과정적 / 미시적   | 결절지역과 동질지역에 적용   |
| 김 병 문           | 관광주체/관광객체/관광매체    | 관광구조상의 균형적인 접근   |
| 이 질 현           | 생산전략/판매전략/교육전략    | 관광농업개발의 발전전략     |
| Pearce          | 출발-도착지/시장-상품/진화   | 관광부문의 공간적 편차를 고려 |
| 안 중 윤           | 자원이용/자원복원/자원창조    | 유무형의 수용체제 정비차원   |
| 김 진 섭           | 공공주도/민간주도/지역주도    | 산업입지와 생활환경 고려    |
| Sola            | 내부전략/외부전략/동태전략    | 관광정책과 관련한 개발가능전략 |
| Davis & Gilbert | 관광객/ 지방정부/ 관민합동   | 농촌관광개발전략         |
| 김 홍 운           | 지역사회개발/지역개발/국토개발  | 균형발전 및 낙후지역개발    |
|                 | 공간구조/ 관광자원/ 관광수용력 | 지역거점 관광자원개발상     |
| Woodcock 외      | 근대화이론/저발전이론/보전적이론 | 지역개발이론과의 접목측면    |

김홍운(1996)은 관광은 일상 생활권을 떠난다는 공간적인 범위를 내포하며 인구의 이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관광자원개발은 도시지역사회와 농촌사회의 균형발전을 촉진시키며 특히 낙후지역과 같은 지역발전의 경쟁력을 제공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하다고 보고 그 의미를 지역사회개발과 지역개발, 국토개발차원에서 찾아야

함을 강조, 포괄적인 관광개발방향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였다. 동시에 지역거점성격의 관광자원개발에 있어서는 집적효과(agglomeration effects)의 관점에서 집중과 분산, 조합 등의 배치 및 관광공간의 진화 상태, 관광요소간의 연결 관계를 고려한 공간 구조론적 접근방법을 시작으로 수요와 공급, 이용자의 행태 등을 포함시킨 관광 자원론적 접근체계, 관광공급대상의 생산성과 적정 이용율을 고려한 관광 수용력적 접근체계 등과 같은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Woodcock과 France(1996)는 지역전통과의 대립 관계 하에서 대규모적으로 소수의 엘리트집단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근대화이론(modernization theory)과 관광의 과도한 의존 및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분리되어 관광으로 인한 지역노동력의 착취가 발생한다는 저발전이론(under development theory), 기타 주객간의 유용한 경제 활동으로서 지역주민의 의사와 지역특성을 반영하며 중장기적인 사고 하에서 비경제적인 가치를 부여한 보전적 개발이론(sustainable development theory) 등을 바탕으로 관광개발에 따른 전략을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

### 3. 다분법적 구조

다분법(multiaccession)적인 입장으로서는 안중윤(1994)의 관광정책상 함축하고 있는 접근법과 개발전략들이 있겠다. 그는 지역의 자원과 시설은 해당지역의 수요와 즐거움을 위해 봉사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바람직한 국내관광개발의 실현체계 모형을 국민생활의 안전과 균등한 향상이라는 이념 및 관광진흥으로 인한 인간성 회복이라는 목적,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특히 정책과정에는 이익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전제로 하고 있음에 유의하여 이러한 갈등의 타협과 협상과 관계한 접근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는 먼저 관광현상과 개발을 개체적으로 분할하지 않고 총체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구조적인 접근법을 시작으로 이익배분과 관련된 경쟁과 타협이 중심이 되

는 정치적 접근법, 거시경제측면을 반영한 경제적 접근법, 미시 경제적 성격을 포함하여 인간의 행동유형에 초점을 맞춘 행태적 접근법, 제도나 정책구조에 가장 민감한 사회문화적 접근법 등에 따라 독점과 장벽, 외부효과의 조절, 형평한 지역개발 시에만 정부가 보이는 손으로서 시장에 개입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그는 과거 종속변수로서 다루어져 왔던 제반환경을 이제는 독립변수로서 인정하여 정책적인 영향과 효과측면에 국한되기보다는 환경에 대응하는 정책과 전략이 요구되고 있음을 주지시키고 특히 지방화라는 환경변화에 있어 관광정책과 전략을 조직개편과 지방공무원의 자세변화, 광역개발관리, 중앙과 지방의 협력강화 등과 같은 방향에서 전개되어야 함을 중점시 하고 있다. 게다가 지방화시대의 관광주역은 지역주민이라고 전제하고 지역관광개발에 따른 전략들은 그들로부터 시작된다고 여기고도 있었다.

한편 Gold(1980)는 관광자와 관광자원을 취급하는 방식에 따라 자원의 배분과 배치, 동선처리, 자연보전 등 물리적인 자연조건이 중심이 된다는 자원적(resources) 접근방법 및 관광여가수요에 바탕을 두고 이용자의 측면을 중심으로 한 활동적(activity) 접근방법, 수급간의 상호조절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economic) 접근방법, 인간욕구의 충족이라는 측면을 중심으로 한 행태적(behavioral) 접근방법, 초점(focus)의 다원화와 소재(locus)의 다양화에 부응하는 혼합적(combined) 접근방법 등을 제시하여 설명하고 있다. Smith(1983)는 관광개발에 대한 입지와 관련지어서 관광지로서의 시설적인 가치를 조사하는 기술적(descriptive)인 접근방법과 여행형태 및 시설의 사용빈도 등을 내용으로 한 설명적(explanatory) 접근방법, 추세분석과 공간적인 상호작용을 알아보는 예견적(predictive) 접근방법,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게 되는 규범적(normative) 접근방법 등을 제시하고 이와 연관된 전략바탕을 마련하고 있으며 Ryan(1991)은 이를 응용하여 규범적 요소를 예방적(prescriptive)인 접근방법으로 대체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Murphy(1987)는 지역사회를 위한 실질적인 관광개발을 증시하고 이에 대한 접근방식을 지역사회의 불이익이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회적 수용력 및 지역의 자원과 주민이 바라는 바를 충족시켜주는 지역사회 중심적 접근방법, 지역주민의 생활양식과 생활의 질과 관련된 영향을 최소화 하는 지역주민참여방식 등을 강조하고 하고 환경 및 접근성, 경제적 보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다. Inskip(1991)은 개발에 따른 환류(feedback)기능을 강조하여 필요시마다 그 개발방향을 바꿀 수 있는 연속적, 점진적, 신축적인 접근방법과 개발시에 관광에 관련된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는 체계적 접근방법, 경제 및 사회문화, 환경 등과 연관된 배경들을 모두 검토하는 종합적 접근방법, 관광개발이 지역특성과 잘 부합하도록 하는 통합적 접근방법, 자연과 문화자원의 손상 없이 계속 지속이 가능토록 하는 환경 보전적 접근방법, 지역주민이 그들의 의사를 가지고 직접 참여, 이익이 되돌아 갈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사회적 접근방법, 관광개발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해야 한다는 실행적 접근방법 등으로 구분 지어 설명하고 있다.

Glyptis(1993)는 관광여가개발계획에 있어 소득수준에 기초한 표준적(standard)인 접근방법과 인구 통계적 수요추정에 기초한 총 수요적(grand demand) 접근법, 시설 입지를 고려한 이용권중심의 공간적(spatial) 접근법, 시설의 규모나 형태의 차별화를 기준으로 한 시설 계층적(hierarchies of facilities) 접근법, 영향평가와 효과를 기준으로 한 격자판식(grid) 접근법, 단편적이지 않은 종합성을 중시하는 조직적(organic) 접근법, 지역 및 정치적 감각을 기준으로 한 지역 사회적(community) 접근법, 보증적(hallmark)사업을 기준으로 한 결과적(issues) 접근법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 5 > 다분법적 접근구조

| 구 분          | 주 요 접 근 체 계                                       | 전 략 내 용         |
|--------------|---|-----------------|
| 안종윤          | 구조적/ 정치적/ 경제적/ 행태적/ 사회문화적                         | 관광정책과 연관된 개발전략  |
| Gold         | 자원적 / 활동적 / 경제적 / 행태적 / 혼합적                       | 관광자와 관광자원의 취급방식 |
| Smith & Ryan | 기술적 / 설명적 / 예견적 / 규범적(예방적)                        | 입지조사와 관광지분석     |
| Murphy       | 환경 및 접근성/ 경제적 보상 /사회문화적 전략                        | 지역사회주민중심        |
| Inskeep      | 연속적 / 체계적 / 종합적 / 통합적 / 환경 보전적 / 지역사회적 / 실행가능적    | 현대적 관광개발개념을 중시  |
| Glyptis      | 표준식 / 충수요식 / 공간식 / 시설계층식 / 격자판식/ 조직식 / 지역사회식/ 결과식 | 관광여가개발계획에 중점    |

## VI. 도농교류와 관광활성화 방안

### 1. 새로운 접근구조체계

일반적으로 관광을 형성하는 구조로서는 주체(관광객), 객체(관광자원), 매체(편의시설)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관광시장(수요)과 관광자원(공급)을 연결하는 교통, 정보, 서비스 등과 같은 일련의 시스템을 일컫는다. 여기에서 관광객은 ‘경험의 질 보장’이라는 일종의 변화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며 관광자원(매력물)을 공급하는 지역주민이나 기업체 등은 경제적인 편익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희망하게 된다.

하지만 관광이라는 현상이 매우 유동적이고 다면적이기에 또한 개발이라는 개념 역시도 그 범위가 매우 넓어 그리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다. 즉, 관광을 의도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의미에서 개발의 수단으로 삼는 접근과 단순히 관광과정에서 필

요한 제반 요소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겠는데 관광 진흥 및 육성과 같은 폭넓은 해석이나 아니면 관광자 또는 관광지역의 희망조건만을 충족시켜주는 좁은 해석이나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광개발이란 관광자원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찾아내거나 높임으로써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경험을 보장함으로써 그 효과로 힘입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일을 일컫는다고나 관광개발을 하고자 하는 자가 자원성, 시장성, 수용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상지에 인력과 자본, 기술 등 유·무형의 투자를 하여 발전을 꾀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결국 오늘날의 관광개발 분야도 단편적인 형태가 아닌 보다 구체적인 영역과 접근체계를 가져야 된다고 할 수 있다(장인식, 2004).

먼저 관광자원개발은 관광객이 관광자원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해 줄 수 있는 활용방안을 시작으로 잠재력 높은 매력개발, 또는 새로운 신규자원의 발굴과 창출 노력이 포함된다. 동시에 기존이든 신규이든 간에 자원으로서의 가치유지 노력과 이용자를 위한 경험의 질 보장, 그리고 수급간의 균형유지를 위한 제반적인 서비스 관리 등을 이에 포함된다.

관광시장개발은 관광 상품화(merchandising)를 중심으로 관광루트와 코스를 개발하여 기존의 관광자원들에 대한 상품가치를 향상시킨다든지 고유성과 표준성을 조절하여 마케팅적 사고에 입각한 관광객 욕구만족을 위한 노력, 기타 일시적 수요 환기나 신 수요창출을 위한 여러 형태의 이벤트를 만들어 내는 것들을 포함된다.

끝으로 관광제도개발은 현실가능성을 감안하여 개발주체에 대한 내·외부적인 여건을 향상시킨다는 부분으로 행정이나 재정적인 지원과 방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것도 내용적으로는 관광인프라와 같은 기반부문과 관광활동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숙박·위락부문, 기타 관광지역에서의 친절과 같은 서비스부문 등으로 구분된다 하겠다.

| 관광개발의 세부영역   |   |   |   |  |
|--|---|---|---|--|
| 관광자원개발   |   | 관광시장개발  |   | 관광제도개발   |
| 개발과 관리   |   | 수요창출과 환기  |   | 관광진흥정책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 활용/복원/창출</li> <li>○ 인적자원개발</li> <li>○ 관리: 자원시설/서비스/이용자</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상품화: 루트, 코스개발</li> <li>○ 명소마케팅 계획</li> <li>○ 이벤트, 축제 개발</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행정: 급부, 질서</li> <li>○ 관광정책: 기획, 조정, 통제</li> <li>○ 기본구조: 기반, 기본, 표층</li> </ul> |
| 투자타당성과 실현가능성   |   |   |   |  |

[그림 2] 새로운 도농관광개발의 접근모형

아무튼 오늘날의 관광개발은 막연한 기대나 한정된 의지로서만 접근하는 분야가 아니라 추구하는 이념과 목적, 과제와 목표 등을 바탕으로 기본방침이 세워지고 개발내용과 방법, 추진주체와 순서 등이 결정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안중윤, 1990). 그 중에서도 특히 자원조건이나 시장조건, 개발 시기, 경영조건, 재정조건 등은 실현가능성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성급한 모방이나 비전문가에 의한 개념 없는 시도는 양적인 팽창은 있을지언정 질적인 내실은 부족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 2. 도농교류 관광활성화 방안

### 1) 기본방향과 원칙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엔 과밀의 문제가 있고 농촌엔 과소의 문제, 그리고 현대시대가 만들어 내고 있는 여가문제, 기타 이들의 부조화에서 나타나는 비효율 문제 등이 도농교류의 해결을 찾는 실마리라 판단한다. 이러한 중심에 과연 관광이라는 수단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가 본 논제의 핵심이다. 그것도 대전지역과 같은 광역시에서 말이다.

여기에다 세계화와 지방화, 표준화와 고유화, 협력과 경쟁, 내부적 복지와 외부적 접객 등과 같이 서로 상반된 개념들을 조합하면서 만들어 가야한다. 동시에 개발이나 보전이나, 자력이나 타력이나 등과 같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들로써 만들어가야 하는 진지한 지혜도 요구된다.

즉, 지역주민의 희망조건과 방문객의 경험의 질 보장, 지역의 자연인문환경의 보전 등이 서로 균형점을 이루는 선에서 발견하는 방책(方策)이 바로 지속가능한 도농교류형 관광개발이 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가볍게 속단하지 않고 여러 정황을 살펴 진지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결국 통제 가능한 사안들과 통제 불가능한 사안들을 구분 지어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들을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전시와 같이 상대적으로 애매모호한 입장에서는 구동존이(求同存異)와 같은 접근방식을 기초(基調)로 삼아 보다 분명한 목표로 차근차근 하나씩 쪼여 나가야 할 것이다. 체계적이며 전략적인 계획은 시행착오적이며 단세포적인 진행방법보다 미래를 위해 더 유용하다는 상식(常識)에 충실하여 지역과 관련된 수많은 연상들을 단순화시켜 이를 전략적인 이미지로 만드는 작업부터 시작하여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대전시의 입장에서는 상생전략(相生戰略)이나 차별화 전략(差別化 戰略)이 가능한데 전자는 중앙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상위계획에 충실하거나 충청지역과의 공동방안 등을 모색해 보는 것이고 후자는 내생적 개발(endogenous development)을 축으로 독자적인 방안들을 모색하는 방법이다.

## 2) 자원개발측면에서의 활성화 방안

우선 중앙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내용부터 접근하는 것이 현명할 듯싶다. MB 정부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여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마련

하였는데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MICE 산업을 지목하고 있다. 동시에 녹색사회기업을 비롯하여 녹색마을 만들기, 생태관광활성화 등을 마련해 놓고 있다(녹색성장위원회, 2009). 여기에서는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논의 된다.

현재 대전의 5개 마을에 대해 동구지역은 대청호반 길 3코스를 활용하여 찬샘마을을, 대덕구 역시도 2코스를 활용하여 두메마을을, 서구지역은 갑천 녹색길로 둔산 지역에서 정방마을, 증촌 꽃마을, 승상골 연꽃단지로 이어지는 코스를 활용하면 좋겠다.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은 한국관광공사 충청권 협력단과 함께 에코 그린 가이드 사업을 병행하여 시행한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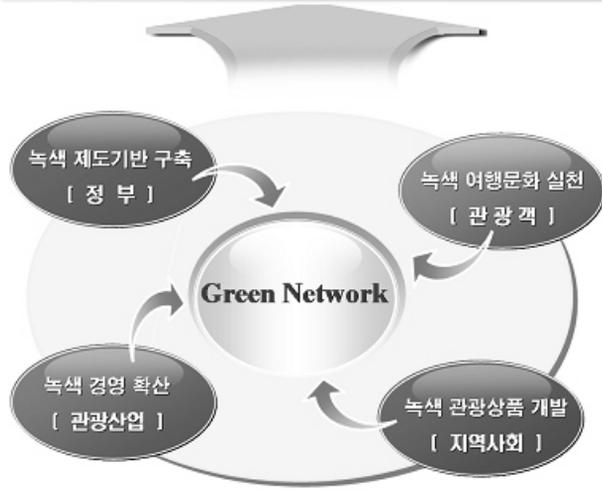
**비 전**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한 농촌관광진흥**

**목 표**

**녹색농촌관광 시장 확대**  
: 녹색농촌 관광객 2만명('09) ⇒ 10만명('14)

**도농교류형 세계적 시범지역 육성**  
: 지정마을 5개소('09) ⇒ 10개소('14)

**기본방향**



**추진과제**

- 추진과제 1 : 자원개발 ⇒ 활용, 발굴, 창출 및 인적자원 양성
- 추진과제 2 : 시장개발 ⇒ 상품화 노력과 명소 마케팅 활동
- 추진과제 3 : 제도개발 ⇒ 행정과 재정적 지원, 추진역량강화

[그림 3] 활성화 비전과 목표

행정안전부와 관련한 사업으로는 ‘지역 녹색성장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이 눈에 띄이는데 올해 대전에선 자전거 환승시스템과 나노융합 녹색기술로 대응한 바 있다. 하지만 다른 지역처럼 근교농촌지역과 함께하는 주제선정도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한편 지식경제부 사업에 있어서는 2013년까지 이어지는 ‘충청권 녹색생태관광사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였으면 한다.

주무부서인 농림수산물식품부와 관련지어서는 2009년에 마련된 ‘도농교류 5개년 계획’을 참조하여 ① 도농교류의 생활화 차원에서 가칭 유희자원 관리 사업단의 설치, 농촌으로의 유학운동 ② 농어촌 체험·휴양기반의 브랜드 차원에서 지역사 회기업 육성, 명소마케팅, 안테나 숍(antenna shop) 설치 운영 ③ 인적자원 양성과 유치차원에서 역량주체 강화, 인력 풀 운영 ④ 글로벌화를 위한 국제도농교류 박람회 등이 검토가능하다 하겠다.

동시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지어서는 자매결연의 확산을 통해 체험관광의 고 품질화를 촉진하고 공동브랜드개발, 한국형 테마향토음식 발굴, 관광환경 디자인 구축, 관광경관정비 등을 계획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08). 한편 한국농어촌 공사에서 마련한 도농교류 협력 사업에서도 실행가능하다. ① 농촌체험사업: 생태 체험, 일손 돕기, 농사체험, 도시생활농업 활성화 ② 농촌 지키기: 전통음식, 직거래전시판매, 전통문화공연 ③ 알리기 사업: 견학과 교육 ④ 폐교활용사업: 전통문화 공간 등이다(한국농어촌공사, 2011).

<표 6> 대전시 근교 농촌마을 현황

| 구분       | 찬샘 마을                         | 무수천하마을                  | 정방마을                          | 선창마을                          | 대청호두메마을                       |
|----------|-------------------------------|-------------------------|-------------------------------|-------------------------------|-------------------------------|
| 위치       | 동구 직동                         | 중구 무수동                  | 서구 용촌동                        | 유성구 송정동                       | 대덕구 이현동                       |
| 지정<br>연도 | 녹색농촌<br>체험마을조성<br>2002년       | 농촌전통<br>체험마을조성<br>2006년 | 녹색농촌<br>체험마을조성<br>2008년       | 녹색농촌<br>체험마을조성<br>2008년       | 녹색농촌<br>체험마을조성<br>2008년       |
| 지원<br>예산 | 2억원<br>(국비1, 시비0.5,<br>구비0.5) | 2억원<br>(국비1, 시비1)       | 2억원<br>(국비1, 시비0.5,<br>구비0.5) | 2억원<br>(국비1, 시비0.5,<br>구비0.5) | 2억원<br>(국비1, 시비0.5,<br>구비0.5) |

### 3) 시장개발측면에서의 활성화 방안

소비자들이 농촌관광을 하는 이유는 여가효용의 증진에 있다(유승우·이희찬, 2005). 즉, 저렴한 비용으로 타 관광이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농촌의 가치를 사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농촌의 가치란 환경과 경관, 전통과 역사, 문화, 농업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하겠지만 신뢰에 바탕 한 사람과의 교류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바로 도농교류의 진정성을 의미한다.

실제적으로 농업진흥청(2009) 조사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와 전국 6대 광역시 도시민들은 약 18.5% 가량이 농촌관광을 경험했으며 1인당 순수하게 4만 5천원 가량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적지까지 선호하는 거리로서는 2시간대가 가장 높아 도시근교가 적합하다는 사실도 발견하였다. 인프라와 콘텐츠,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높게 인식되고 있었으며 관광안내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농촌이 지니는 다원적 기능을 최대한 극대화하고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차원에서 새로운 농촌가치를 만들에 내어야 한다. 바로 여기에 시장성과 경쟁력이 있다하겠다. 여기에는 자원조사와 평가 → 개발방향 마련 → 아이디어 탐색 → 사업성 평가 → 프로그램 기획 → 프로모션 → 평가와 개선 등과 같은 절차에 따라 먼저

대전광역시에 발굴 가능한 농촌마을들을 대상으로 한 시장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동시에 대전이 지니고 있는 과학과 행정, 교통중심지라는 이미지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른 지역의 농촌상품보다 IT기술을 접목한다던지 대전이외 지역의 방문객들이라면 도심과의 연계프로그램도 병행함도 좋을 것이다. 게다가 행정타운과는 보다 더 효율적인 자매결연 행사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교통중심지의 이점은 도농교류 관련 박람회와 모임, 행사 등을 자주 개최하는 방안도 유익해 보인다.

표적시장 역시도 역내와 외래, 내국인과 외국인, 기타 다양한 시장세분화 기준에 따라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150만 도시규모에 2시간 이내에 위치한 근교농촌은 도농교류를 통한 관광매력가치는 충분해 보인다. 다만, 획일적이며 단편적인 기능으로서는 한계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대전도심권내 다양성과 조화된 수요관리와 연계상품이 필요해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인근시군(Group Nine)과의 공조체제도 바람직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농촌관광 참여자들의 의사결정 요인으로서는 교육 추구형, 활동 추구형, 지적호기심형, 휴식 추구형, 다양성 추구형, 고향 방문형, 일상 탈출형, 도전형 등이 언급되고 있는데 대전과 충청지역만의 남다른 조사 자료는 전무해 보인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중의 하나가 바로 이러한 정확한 시장조사가 될 것이다.

|                    |          |           |              |
|--------------------|----------|-----------|--------------|
| 환경가치(circumstance) |          | 프로그램(콘텐츠) |              |
| 농촌경관, 자연생태, 어메니티   | ⇐ 도농교류 ⇐ | 문화체험      | 농업과 문화체험     |
| 문화가치(culture)      |          | 만 들 기     | 공예와 요리 등     |
| 농촌생활문화, 고유성과 전통성   |          | 생태학습      | 관찰과 채집, 감상   |
| 지역가치(community)    | ⇐ 농촌관광 ⇐ | 레 포 츠     | 육상과 수상 등     |
| 지역연계와 파트너십, 네트워크   |          | 건 강       | 미용, 수련, 치료 등 |

[그림 4] 농촌의 시장가치와 내용

#### 4) 제도개발측면에서의 활성화 방안

여기에서는 기획능력과 추진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전문운영 조직구성이 관건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서라도 산학관연의 네트워크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전문인력 풀에 의한 관리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 동시에 조만간 설립예정인 대전도시마케팅공사에 있어서도 도농교류 기능을 소화해 낼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한다. 또한 대전정책 연구기관에도 관련전문 연구원을 배치, 선진 국내외의 사례연구 및 다양한 정책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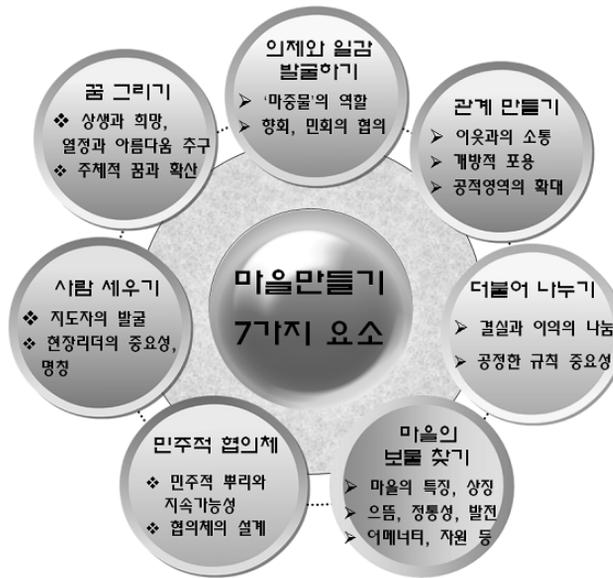
또한 지역주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여건조성도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농촌지역만이 아닌 대전광역시 77개동을 전체삼아 가칭 ‘지역공동체 지도자 양성사업’을 제안해본다. 여기에는 도농교류 활성화라는 목적도 있겠으나 지역공동체 스스로의 문화 환경을 가꾸어가며 잃어가는 사회성을 되찾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하겠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로의 확대도 바람직하다.

도시와 농촌 공히 주민이 주체가 되어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가꾸어가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 보자는 것이다. 내용인 즉, 편리한 시설과 접근성, 깨끗한 자연속의 삶, 따뜻한 이웃 공동체, 성장성 있는 경제 등 4가지로 규정한 ‘살기 좋은’의 의미와 꿈, 일감, 관계, 나눔, 보물찾기, 협동, 사람(인재) 등 7가지로 정리되는 ‘만들기’의 의미를 서로 조화시키면서 나름대로의 지역 환경에 적용시키는 노력이 바로 그것이다.

아님 마을의 특성과 자원에 따라 ‘살기 좋은’의 의미 네 가지 중 한 가지에 집중하여 가꾸어갈 수도 있으며, ‘마을 만들기’의 일곱 가지 요소 중에서 몇 가지를 조합하여 그 마을만의 특색 있는 그림과 과정을 그릴 수 있는가도 해결 방안이 된다. 주민이 살기 좋은 마을에 대한 꿈을 꾸고, 주체적으로 실행해 감으로써 객관적이지자 주관적인 마을환경이 개선되어 가는 중심에 바로 활발한 도농교류를 자리 잡게 하자는 것이다.

먼저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아름다움에 대한 꿈을 함께 꾸고 삶의 터에서 행복을 숨 쉴 수 있는 소재개발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가지고 개방적인 포용력으로

이웃과 소통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시킬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야 한다. 여기에는 인재가 스스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참된 일꾼을 찾아내고 육성시키는 일들은 시민단체나 지방정부의 몫일 것이다. 주민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리더와 스스로 헌신을 자청하려는 자원봉사자가 많이 육성되어야 성공할 수 있기에 지도자를 양성 하자는 것이다.



[그림 5] 도시와 농촌의 살기 좋은 만들기

바로 여기에서 민주적인 협의체도 필요하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마을의 결속력에 틈이 생기고 갈등이 시작된다. 여기에서 현장리더가 공동의제와 일감을 발굴하는 과정을 주도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이 과정에서도 지도자의 이해관계는 가능하면 배제하고 주민의 이해관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그래서 사전에 공정한 규칙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대다수의 구성원

들이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의사소통의 문제나 사업진행 과정에서의 변화 때문에 주민들의 기대가 변화하기 때문이다. 주민들 간 합의된 규칙에 따라 사전에 공정한 규칙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하겠다.

공정한 나눔과 배품 없이는 신뢰도 지속되지 않는다. 이는 마을축제 만들기의 핵심적 역할을 한다. 진행과정에서 최대의 위기는 이익의 충돌에서 초래될 수 있다. 협동의 결실과 이익을 형평하게, 민주적으로 그리고 더불어 나누는 것이야말로 양질의 마을축제 만들기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존속토록 하여준다. 가능하다면, 지역사회 의 약자에게 이익이 더 배분될 수 있도록 배려하기에 합의된 명문화(공식화)도 필요해 보인다.

## V. 결 론

본 연구는 지역발전에 있어 잠재력 높은 관광개발의 수단화 움직임에 있어 기존의 농촌관광개발에 대한 접근체계를 살펴보고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한 바람직한 새로운 접근모형을 제시해 보았다. 하지만 이제 막 농촌관광계획이나 농촌대상 관광공간 개발에 머물고 있는 수준과 범위를 관광자원개발, 관광시장개발, 관광제도개발이라는 분야로 확산시키고 나름대로의 세부방안들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판단한다.

물론 이 같은 주장은 관광개발의 목표와 접근방법이 관광대상에 따라 각기 달라지는 관광개발상의 본질 때문에 말처럼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관광대상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원리나 법칙의 발견과 예측이 매우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이다.

먼저 관광자원개발 측면에서는 관광객이 관광자원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해 줄 수 있는 활용방안을 시작으로 잠재력 높은 매력개발, 또는 새로운 신규자원의 발굴과 창출노력이 포함된다 하겠다. 동시에 기존이든 신규이든 간에 자원으로서의 가치유지 노력과 이용자를 위한 경험의 질 보장, 그리고 수급간의 균형유지를

위한 제반적인 서비스 관리 등이 포함된다.

관광시장개발 측면에서는 관광 상품화(merchandising)를 중심으로 관광루트와 코스를 개발하여 기존 관광자원들에 대한 상품가치를 향상시킨다든지 고유성과 표준성을 조절하여 마케팅적 사고에 입각한 관광객 욕구만족을 위한 노력, 기타 일시적 수요환기나 신 수요창출을 위한 여러 형태의 이벤트를 만들어 내는 것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끝으로 관광제도개발은 현실가능성을 감안하여 개발주체에 대한 내·외부적인 여건을 향상시킨다는 부분으로 행정이나 재정적인 지원과 방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것도 내용적으로는 관광인프라와 같은 기반부문과 관광활동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숙박·위락부문, 기타 관광지역에서의 친절과 같은 서비스부문 등으로 구분 지어 보았다.

도시는 만들기보다 관리하기가 더 어렵다고 한다. 새로운 도시건설만큼이나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한 도시정책 역시도 쉽지 않다는 풀이이다. 또한 국가 간 경쟁에서 도시 간 경쟁으로 변모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창조력은 매우 중요한 수단이자 목적도 될 수 있다. 농촌 역시도 급변하고 있다. 많은 노력과 지원이 뒤따른다 해도 여전히 벅차기만 한 현실이다.

이에 대해 본 논고에 있어서는 바로 그 핵심에 자발적인 지역공동체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휴먼웨어에 입각한 활발한 도농교류를 강조해 보았다. 비록 아마추어 같은 수준일지라도 『생활문화 공동체 만들기』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차원에서의 접근노력을 제시해 본다.

결국 도시의 과밀문제와 농촌의 과소문제를 효율성 높은 여기문제로 연결 지어 ‘교류’와 ‘지역공동체’라는 범위까지 그 활용정도를 넓혀보게 되었다. 그것도 자원 측면과 시장측면, 정책측면의 균형 있는 방안모색을 요구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시론적인 입장에서 일종의 현안을 급히 다루고 있다는 한계점도 인정하면서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신겸(2007). 『농촌관광: 새로운 농촌 활성화 전략』. 서울: 대왕사, 332~335쪽.
- 관광지식정보시스템(2011). [www.tour.go.kr](http://www.tour.go.kr)
- 고동완(2010). “녹색관광이란 무엇인가? 개념과 의미”. 『제68차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관광학회, 671~686쪽.
- 김성진(2006). 『지속가능한 정주형 관광개발체계 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7~30쪽.
- 김수신·고병호(2003). 『지역개발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30~44쪽.
- 김창현·이순자·이성수(2006). 『지역특성을 고려한 농촌 활성화방안연구』. 서울:국토연구원, 5~27쪽.
- 녹색성장위원회(2009).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요약본)』. 24~50쪽
- 농림수산식품부(2008).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해설집』. 20~25쪽.
- 농림수산식품부(2009).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 5개년 계획』. 7~8쪽.
- 농촌진흥청(2006). 『농촌관광마을 방문객 선호 및 시장세분화』. 150~153쪽.
- 농촌진흥청(2009). 『도시민 농촌관광 실태조사』. 5~28쪽.
- 대전광역시 동구(2008). 『찬샘농촌문화체험휴양마을 활성화종합계획』. 17~18쪽.
- 류선무(2009). 『농촌관광 성공전략』. 서울: 백산출판사, 32~37쪽.
- 문화체육관광부(2008). 『제3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 295~304쪽.
- 박구원(2008). 『도시·지역관광의 뉴프런티어』. 서울: 백산출판사, 357~363쪽.
- 박덕병(2005). 『농촌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외국의 농촌개발정책』. 서울: 농촌자원개발연구소, 4~8쪽.
- 박용신·고동우(2010), “농촌관광마을에서 사회적 자본이 주민통합과 삶의 질 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제34권 제8호, 33~55쪽.
- 송광인(2004), “한국의 녹색관광에 관한 연구”, 『여행학연구』 제20권, 49~70쪽.
- 송재우·장성수(2002), “관광지 개발 구조모델의 구축과 검증”, 『관광학연구』 제26권 제3호, 11~31.
- 안중윤(1990), “올바른 한국관광개발의 기본체계모형의 시론”, 『관광학연구』 제14권, 89~108쪽.
- 유승우·이희찬(2005). 『농촌관광 수요확대방안 연구』.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73~80쪽.
- 장인식(2004). “관광개발의 학문적 성격과 범위”. 『여가관광연구』. 제1권 2호, 57~82쪽.
- 조광익·이돈재(2010). “관광연구의 정치화: ‘녹색관광’의 의미변환”. 『제68차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관광학회, 689~702쪽.
- 한국국제관광개발연구원 역(2000). 『관광학사전』. 백산출판사. 24~37.
- 한국농어촌공사(2011). [www.welchon.com](http://www.welchon.com)
- Bale, John et al. ed (1988). *Tourism and Development in the Third World*. London: Routledge. p. 17.
- Davies E. T. and Gilbert, D. C. (1992). “ Planning and Marketing of Tourism: a case study of the development of farm tourism in Wales”, *Tourism Management*, Vol. 13(1), pp. 56-63.
- Caneday and Zeiger(1991). “The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Costs of Tourism to

- Gambling Community as Perceived by Its Residents”,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 30, No. 2, pp. 45-49.
- Drake, S. P.(1991). “Local Participation in Ecotourism Project”, Tensie Whelan ed., *Nature Tourism: Managing for the Environment*. Washington: Island Press, pp. 132-156.
- Glyptis, S. ed.(1993), *Leisure and the Environment*. London: Belhaven Press, pp. 85-96.
- Gunn, Clare A.(2000). *Tourism Planning*. Crance Russak & co. Inc., 2000.
- Edgell, D. L. (1990). *International Tourism Policy*. N.Y., Van Nostand Reinhold.
- Holder, J. S. (1995). “Pattern and impact of tourism on the environment of the Caribbean”, S. Medilik ed., *Managing Tourism*. Oxford: Butterworth Heinemann, p. 280.
- Inskeep, E. (1991). *Tourism Planning*. N. Y: Van Nostrand Reinhold, p. 29.
- John, N. and Wheeler, K. (1991). “Productive and Performance Measurement and Monitoring”, Richard Teare and Andrew Boer ed., *Strategic Hospitality Management*. N.Y.: Cassell. pp. 45-71.
- Kermath B. and Thomas, R. N. (1992). “Spatial Dynamics of Resort”,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19, No. 2, pp. 173-190.
- Lickorish(1991), L. J. *Developing Tourism Destination*. London: Longman, pp. 61-77.
- Manning, R. E. (1984). *Studies in Outdoor Recreation*. Oregon State Univ. Press, pp. 100-105.
- Murphy, P. E.(1985). *Tourism: A community approach* . N.Y: Methuen, pp. 30-38.
- Pearce, D. (1987). *Tourism Today: A geographical analysis*. N. Y: Longman S&T, pp. 5-20.
- Pearce, D. (1989). *Tourist Development*. N.Y: John Wiley & Sons. pp. 67-70.
- Peck J. C. and Lepie, A. S.(1977). “Tourism and development in three North Carolina costal towns”, Valen L. Smith, ed., *Host and Guests: the anthropology of tourism*.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p. 203-222.
- Ryan, C. (1991). *Recreational Tourism*. London: Routledge, pp. 50-64.
- Sharply, R. & Sharply, J. (2002). *Rural Tourism*. Boston: I.T.P.B, pp. 14-20.
- Sola, E. F.(1992). “ A strategic outlook for regional tourism policy: the White Paper on Valencian Tourism”, *Tourism Management*, Vol. 13, No. 1, pp. 45-49.
- Swarbrooke, J. (1995). *Th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Visitor Attractions*. Oxford: Butterworth Heinemann, p.27.
- 北川宗忠(2001). 「観光事業論」. 東京: ミネルウア書房. pp. 3~4.
- A Reinvigoration Plan for Rural Tourism by the Urban-Rural Exchange Programme

## Abstract

The flying mega trend starting from a hunting society has been through an agricultural, industrial society and has passed by an information society, and is now going straight into a future society of new material. At this very point of time, new ideas and uncommon contents are competitive power itself.

It is green tourism that resides in this realm. Distinguished scholars on the future often call it the most promising future industry because it is motive power which can tie up our global village into the imagined community from now on.

In addition a lot of 「Urban-Rural Exchange Program」 going along with understanding and calculation show up in the stream calling for sustainable tourism which is able to live eternally into a future society. But they also have to maintain a method where essential authority can be sustained.

From this point of time certain alternatives can be needed where both personal pursuit of happiness, guaranteeing life quality and making use of sound leisure are possible. Guaranteeing an energetic community could be the main key to them. In other words, creative cultural conditions ought to be prepared grounded upon a local community.

This study mentioned Green Tourism focusing on human ware because voluntary power of a community, the core of preparing creative cultural conditions, is necessary. Among green tourism springing up like so many mushrooms after a rain, approaching efforts, even though they are on an amateur level, are of necessity from a dimension of 「making a living community」 and 「making a better village for living」.